

“백내장 수술... 적합한 렌즈 선택 필수”

HEALTH

2022년 6월 1일 수요일

백내장은 실명의 3대 원인인 녹내장, 당뇨망막병증 그리고 황반변성과 더불어 대표적인 안과 질환 중 하나로, 정상적으로 투명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수정체에 혼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최근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백내장의 유병률의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40~50대 중년층에도 백내장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백내장으로 진료를 받은 40대 환자 수가 최근 10년간 58% 증가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기조와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인해 백내장에 대한 관심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으며,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된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전남대병원 윤경철 교수의 도움을 받아 백내장의 발병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알아본다.

노화·자외선 노출 등 원인 수술적 요법 가장 효과적

인공 수정체 재질 다양화 충분한 상담 후 결정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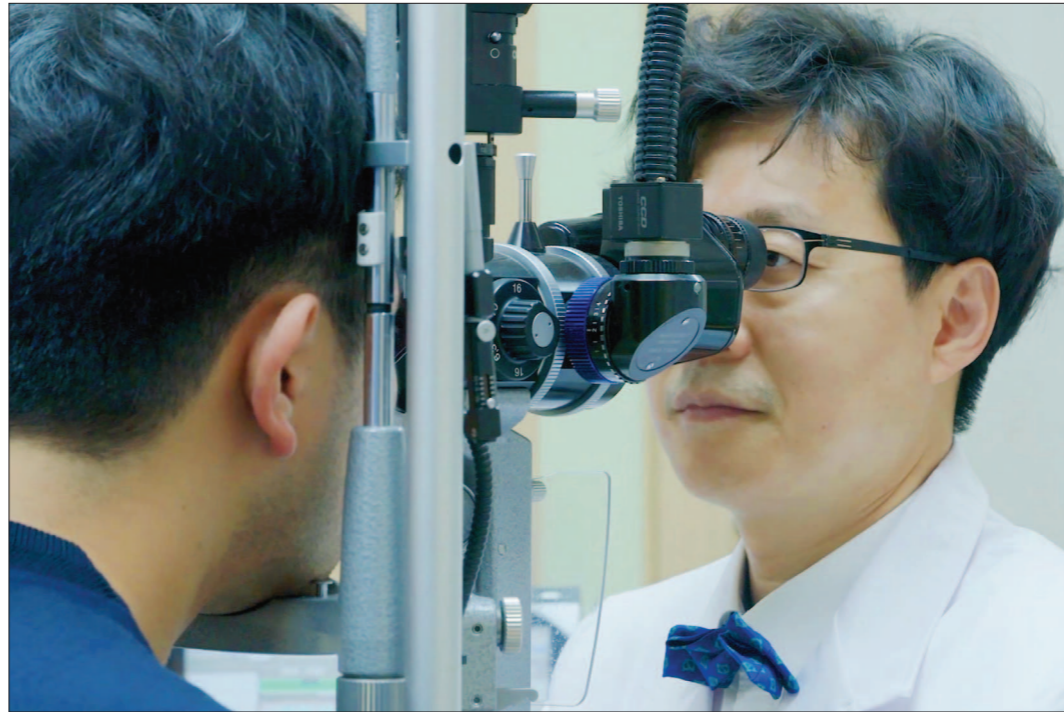
△노화·전신질환 등으로 발병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된 발병 원인은 노화현상이다. 그 외에도 태양광선에 의한 자외선 노출, 흡연, 고도 근시,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의 전신질환,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복용 등도 백내장 발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하루 15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백내장 발생률이 40%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으며, 반대로 비타민 C, 비타민 E, 리보플라빈, 카로틴 등의 식이성 항산화물은 백내장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내장의 자가 증상은 수정체 혼탁의 위치와 정도, 범위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백내장의 증상 중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통증이 동반되지 않은 시력 감소로, 안경이나 돋보기를 써도 항상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외의 자가 증상으로 눈부심, 대비 감도의 저하, 수정체 근시, 단안 복시, 색각 감퇴, 시야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백내장의 진단은 안과에서 현미경 검사만으로 대부분의 수정체 혼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시력저하의 정도와 함께 수정체 혼탁부위와 혼탁정도를 통해 수술 시기 및 수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변부 수정체에 혼탁이 있는 경우에는 백내장



윤경철 전남대병원 안과 교수가 백내장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

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백내장 이외에 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눈 질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백내장이 의심되면 동공을 확장 시킨 후 정밀한 안과 검사를 시행 받는 것이 좋다.

△약물보다 수술로 치료해야

백내장의 궁극적인 치료방법은 수술적 제거이다. 약물치료를 통해 백내장의 진행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수정체의 혼탁을 되돌릴 수는 없다. 약물치료의 경우, 항산화제, 아미노산과 같은 약물의 복용이 있으나 효과가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아, 수술요법의 보조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외 백내장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생활습관으로는 자외선차단을 위한 선글라스 착용, 금연, 과량의 알코올 섭취 제한, 혈당조절 등이 있다.

백내장 수술 시기는 환자의 시력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이지만, 그 외 증상, 기능적 시력 요구 정도, 환경 등의 다양한 면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백내장 수술법은 최근 약 30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술방법은 각막에 2.2~3.0mm 정도의 절개창을 만든 후, 초음파를 이용한 수정체 유화술로 백내장을 제거한 다음, 수정체낭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이다.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의 기능을 대신하기 위해 삽입하는 렌즈로서, 과거에는 PMMA 재질의 경성 인공수정체가 사용됐으나, 요즘에는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각막절개의 크기가 작아짐에 따라 아크릴 재질의 연성(접합) 인공수정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백내장과 난시를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난시 교정 인공수정체와 더불어,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노안 교정 인공수정체, 즉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도입돼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기존의 먼 곳과 가까운 곳 중 하나만 선택해 초점을 맞추는 단초점 렌즈와 달

리 초점이 두 개 이상 맺혀 원거리, 중거리, 근거리 시력 모두를 개선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현재 회절형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렌즈 뒷면의 빛을 퍼지게 하는 동심원을 통해 두 개 이상의 초점을 형성하는 것이 그 원리이다. 회절형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 근거리 시력 개선 효과는 뛰어나지만 입사광선의 소실로 인해 대비 감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달무리나 빛 번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충분한 상담...적합한 렌즈 선택 필수

최근에는 새로운 다초점 인공수정체인 확장 초점 심도 렌즈도 개발돼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 회절형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링이 없는 대신 광학부 표면의 미세용기를 통해 파면을 늘려 초점거리를 확장시킨 렌즈이다. 회절형 다초점 인공수정체와 확장 초점심도 렌즈를 비교하면 회절형의 경우 좀 더 우수한 근거리 시력 개선을, 확장 초점심도 렌즈의 경우 좀 더 우수한 중간시력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뛰어난 시력교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벽한 노안의 치료방법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 전 인공수정체 선택에 있어서 의사와 충분한 상담이 중요하며 개인의 직업이나 취미활동 등 생활 패턴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특히, 본인의 기대치가 매우 높은 경우나 예민한 성격, 심한 안구건조증이나 망막, 시신경 질환이 있는 경우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피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질환이지만, 최근 진단 및 수술 장비, 수술 기법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큰 합병증 없이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다. 최근 다초점 인공수정체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시력 개선 효과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나, 수술 전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산화 기사 goback@gwangnam.co.kr



도움말-윤경철 교수
전남대병원 안과

통합의학적 암 치료방향 제시 ‘눈길’

한독생의학학회, 온·오프라인 심포지엄 진행 매주 목요일 암 환우들에 희망·알 권리 등 제공

한독생의학학회가 암 환우들의 올바른 치료 방향을 제시하는 심포지엄을 진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1일 한독생의학학회가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비오메드요양병원에서 앞으로 진단·치료 받는 환자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적극 치료에 동참할 수 있도록 ‘통합의학적 암 치료는 암 환우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다’란 주제로 온·오프라인 심포지엄을 추진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강연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로 매주 목요일 진행되고 있다. 6월 2일에는 제3차 심포지엄을 준비 중이다.

지난 1차 심포지엄(5월 19일)에서는 ‘증례를 통한 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새로운 시도’라는 주제로 위암에서 난소로 전이된 말기 암 환자와 난소암에서 간과 복막, 림프절로 전이된 환자가 통합의학적 치료로 수술이 가능하게 된 사례 등을 비교해 보며, 통합의학적 암 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제시했다.

지난 5월 24일에는 ‘통합의학적 암 치료에 활용되는 환자맞춤형 주사요법’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암 환자의 경우 집중치료 전과 후 일반인보다 더 많은 대사활성물질이 필요한 만큼, 강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암 치료의 중심에 있는 ‘아셀렌산나트륨(셀레네제)’와 차세대 면역항암제 ‘이무노시아닌(이무코렐)’ 등 암 환자의 영양과 면역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치료제의 원리,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암 요양병원 의료진, 약사 등 의료전문가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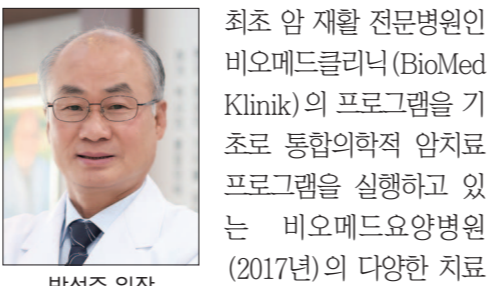
특히 메인 강연자로 나서고 있는 박성주 비오메드요양병원 진료원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수

많은 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항암 치료만 받을래’하는 생각으로 정말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 있는 환자들 이었다”며 “이러한 환자들에게 직접 통합의학적 암 치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지, 내 몸은 내가 만들어야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지난 2017년 하거바사의 이념과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비오메드요양병원의 개원 이래 수많은 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임상적 경험을 토대 암종과 병기의 암 환자들에게 소개, 치료에 희망을 가지고 올바른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강중욱 한독생의학학회 대표는 “2004년부터 의사와 약사, 한의사 및 환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해 오고 있다”며 “이제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온라인을 활용한 강연을 통해 암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가 보장돼 온전한 암 재활 전문병원들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독생의학학회는 2004년 독일 통합의학의 선구자 하거바사(Dr.Hager)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해 독일 생물의학적 암 치료제(1982년)의 학술과 정보 그리고 유럽



박성주 회장

최초 암 재활 전문병원인 비오메드클리닉(BioMed Klinik)의 프로그램을 기초로 통합의학적 암 치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비오메드요양병원(2017년)의 다양한 치료 사례를 제공, 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다.

학회가 제공하는 통합의학적 암 치료는 생물 의학적 제제인 고용량의 셀레네제와 이무코렐을 중심으로 환자 맞춤 영양치료, 온열치료 등을 융합해 현대의학적 치료의 효과와 극대화하고, 부작용과 후유증을 경감해 암 환자의 생명연장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이다.

향후 학회는 다양한 암 재활 전문병원의 임상 증례와 학술 정보 및 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심포지엄을 매주 목요일 7시에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또는 온라인 심포지엄 참여문의는 학회사무국(1566-92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산화 기사 goback@gwangnam.co.kr



전남대병원·조선대병원 등 광주지역 대학병원 마취 적정성 평가 ‘1등급’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등 광주지역 대학병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취 영역의 의료 질 개선 및 마취 환자 안전관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 1차 마취 적정성 평가를 시행했으며, 이번에는 전남대병원(병원명)으로 확대해 총 38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차 평가를 했다.

평가내용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1인당 월 평균 마취 시간 △구조조 부분 지표(인력·시설·장비 등) △과거 부분 지표(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등 안전관리 활동) △결과 부분 지표(마취 중·후 정 상태유지 환자 비율) 등이다.

전남대병원은 마취 전 환자평가 실시율, 회복실

에서의 오심 및 구토와 통증 점수 측정비율, 회복실 운영 여부, 전문의 당직 여부 등에서 100점 만점을 받는 등 평가지표 대부분의 항목에서 고득점을 기록해 2년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2차 평가에서는 97.4점을 받아 지난 2020년 1차 평가(96.8점)보다 점수가 상승했다.

또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진료가 발생한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84곳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 평가에서도 1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조선대학교병원도 이번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2회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조선대 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을 기록, 전체 평균 87.4점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최우수의 의료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산화 기사 goback@gwangnam.co.kr

화순전남대병원 ‘환자안전의 날’ 행사

화순전남대병원이 ‘함께하는 환자안전’ 캠페인을 통해 환자 안전 4대 실천을 약속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정용연)은 최근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가 참여해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2022 환자사랑 환자안전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자에 안전을 더하다’를 주제로 환자안전에 대한 마인드 고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환자사랑’ 나무에 환자확인 스티커를 붙이는 캠페인을 통해 환자안전에 대한 4가지 약속(나의 상태 가져오기, 말하기, 질문하기, 확인하기)을 강조했다.

또 정승일 의료질관리실장(비노의학과 교수)의 ‘환자에 안전을 더하다’라는 주제의 특별강연과 ‘퀴즈로 배우는 환자안전’ 행사를 통해 환자안전



문제에 대해 공감했다.

환자 안전문화 확립에 기여한 부서와 직원들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정용연 화순전남대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환자중심’이다. 이는 곧 환자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미이다”며 “환자안전을 병원문화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산화 기사 goback@gwangnam.co.kr